

지역 수출 35.2% ↓...코로나 이후 3년여만 최대 감소

●무협 광주전남본부 '5월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

전남 10대 품목 부진에 44.3% '뚝'...17개 시도 중 최대
광주 대표품목 반도체도 14.2% ↓...6개월째 '침체 늪'

지난달 광주·전남 수출액이 3년여만에 최대 감소를 보였다. 올 초부터 수출 실적을 견인해온 자동차·차 부품 덕에 선방한 광주와 달리 석유화학산업 의존도가 높은 전남의 경우 석유화학제품 수요 부진 속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출 감소율을 보이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9일 한국무역협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발표한

'5월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 수출액은 46억5천만달러로 집계, 전년 동기 대비 35.2%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광주·전남 양 지역 모두 수출이 대폭 꺾였던 2020년 4월(-45.2%)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지난해 고유가와 수출 호황 속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전남의 수출이 울 들어난 향을 겪으며 역기저효과를 보인 영향이 컸다.

수요 부진 속 지속된 수입단가 하락세에 증량 감소까지 더해지며 수입액도 23.8% 줄어든 43억 1천만달러를 기록, 2개월 연속 20%대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광주·전남 무역수지는 3억5천만달러로 전년 동월(15억3천만달러) 대비 77.1% 줄어들었다. 광주는 8억6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한 반면, 전남은 5억2천만달러 적자를 보이며 3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이어나갔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수출 부진이 돋보였다. 지난달 전남의 수출액은 3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3% 감소했다. 전남의 수출 감소율은 전국 평균 수출 감소율(-15.2%)을 세 배 가까이 상회하며, 17개 지자체 가운데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전국 수출 규모 8위 전남은 지난해 같은 달만

하더라도 9위 충북과 수출액 차가 26억7천만달러에 달했으나 올해는 7억6천만달러로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전국에서 전남이 차지하는 수출 비중 또한 9.0%에서 5.9%까지 떨어졌다. 지난달 전남은 상위 10대 품목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수출 단가 하락과 함께 물동량까지 감소하며 전남 수출 1위 품목인 석유제품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무려 46.3%나 줄어들었다. 경유(-5.0%), 제트유(-54.7%), 자동차휘발유(-25.9%) 등 주요 석유제품 수출이 모두 20% 이상 감소했다. 이와 함께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화학제품 가격 하락과 글로벌 제조업 경기부진 영향에 합성수지(-18.9%), 기타 석유화학제품(-10.5%), 합성고무(-35.4%), 석유화학중간원료(-58.2%) 모두 수출이 고꾸라졌다. 국가별로는 전남 수출상

대국 1위인 중국(-34.0%)를 비롯한 상위 10개 수출국 중 베트남(8.5%)과 벨기에(9.2%)를 제외한 모든 국가로의 수출이 감소했다. 광주의 경우 지난달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3.9% 줄어든 15억5천만달러로 집계됐다. 미국 판매 호조와 자동차 생산 확대 추세 속 자동차(20.8%), 자동차부품(23.8%), 타이어 등 고부제품(8.3%)을 비롯한 자동차 관련 품목 수출이 모두 선방했다. 자동차 수출은 올해 들어 매달 6억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광주 1위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반면 또 다른 대표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냉장고 수출은 각각 14.2%, 19.8% 감소했다. 이중 반도체의 경우 업황 악화 지속, 재고 누적 영향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양시원기자

전남우정청 '등기 우편' 복지 사각지대 해소 '톡톡'

10개월 간 위기가구 89건 발굴, 78가구 복지서비스 연계

전남지방우정청이 전개하는 '복지등기 우편 서비스'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전남지방우정청은 19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남구를 제외한 광주시 4개 자치구와 무안·영광군과 협력해 총 3천470통의 복지등기 우편물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위기가구 89건을 발굴, 이 중 78가구가 기초생활 수급지원과 차상위

계층 지원, 생계비 지원, 상담 지원, 물품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는 우체국과 지자체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해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이다. 실제로 광주 북구 중흥동에 복지등기 우편물 배달을 위해 방문했던 단담 집배원은 실적 후 오랫동안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구직에 어려움을 겪던 A씨 집에 독축장과 체납 관련 우편물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구청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이후 복지담당 공무원이 A씨와 상담을 진행하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

A씨는 이후 전남지방우정청에 복지등기에 담긴 안내문을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알 수 있게 됐으며 손을 내밀어준 우체국과 지자체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송관호 전남지방우정청장은 "우체국과 지자체가 협업해 적극적으로 발굴한 위기가구에 복지서비스가 제공돼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을 확대해 국민에게 행복을 배달하는 우체국이 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인제나 사랑받는 인마의자
88년
선진안마기술집약체

Luxury Lifestyle
보면 기분 좋고, 앉으면 행복하다.
최고의 프리미엄 인마의자를 원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REAL PRO MAF1 | MA32 | MAK1

Panasonic

파나소닉프라자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

대한민국 3대 명인 과일 모음전
신세계백화점이 오는 22일까지 백화점 본점 등 전 점포 지하 식품관 과일 코너에서 춘향골 복숭아, 성주 게마리농 참외, 제주 애플 망고 등 대한민국 3대 명인 과일을 판매한다. <신세계백화점 제곡>

광주은행, 토종 가맹점주·소상공 특별보증 대출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최장 5년
교육 이수자 ▲광주은행 및 광주신용보증재단 컨설팅 신청 업체 ▲영업점장 인정 우대금리 등 조건에 따라 최고 0.8%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은행 영업점 및 광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지난 5월 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역 소상공인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함에 따라, 광주은행은 5천900억 원 규모 서민금융 종합지원, 6천300억원 규모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등 총 12조2천200억원의 상생금융 계획을 발표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국내의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가 지역 경제를 잠식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채만기자

중기부, 비수도권 초기투자 촉진 '지역엔젤 펀드' 조성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대한 초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를 조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는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모펀드다. 개인투자조합별 약정총액 기준 최대 80%까지 출자한다. 출자를 받은 개인투자조합은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조합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은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시원기자

스마트한 에너지사용 방법
난방비 똑똑하게 절약하는 방법!
①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20℃입니다. 난방온도 1도 낮추면 에너지사용량을 7% 줄일 수 있습니다.
② 북쪽이와 문풍지로 외풍을 막으면 실내온도를 2~3도 가량 높일 수 있습니다.
③ 내복, 양말 등 실내에서 방한용품을 활용하면 체감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④ 전열기는 꼭 필요한 때만 사용하고, 사용 시에는 소비전력을 꼭 확인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